

Effects of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in the military educational environment on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cadets at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KAAY)

Seok, Hyeseon* · Kang, Yongkwan** · Ahn, Dong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s of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in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on self-directedness and learning outcome of cadets. To this en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was used to collected data from 409 cadets in the 4th grade of the KAAY in the six-week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from July to August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cadets and the learning outcomes of cadets. We also found self-directedness in the learning of cadets mediated the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and learning outcomes. The findings could help to pay attention to the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as a strategy to foster self-direction in the learning of cadets.

Keywords : cadets, instructor's coaching behavior,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First Author) KAAY, Department of Psychology, Lecturer, greetu@hanmail.net, <https://orcid.org/0009-0004-3202-7854>.

** (Co-Author) KAAY, Department of Psychology, Assistant professor, 13128kang@gmail.com, <https://orcid.org/0000-0003-0062-6145>.

*** (Corresponding Author) KAAY, Department of Psychology, Lecturer, don2376@naver.com, <https://orcid.org/0009-0002-8667-7487>.

I. 서론

4차 산업혁명(4IR)의 뉴노멀 시대에 이전과 달리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융합적 사고, 전문적 직무수행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¹⁾ 그래서 교육 환경은 기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례로 자기 주도 학습,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PBL(Problem based learning), 멘토링, 코칭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법의 변화로 교수자는 수업 시간의 토의 활동에서 촉진자 및 안내자 역할에 대한 구체적 지침 부족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다. 왜냐하면 토의식 수업은 참여자 간의 토의 자체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ilon, 1994). 학습자는 수업 전에 제공되는 학습 자료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실제 학습자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결국 교수자의 토의 안내나 참고자료 제공이 부족하거나 학습자의 내용 이해나 토의 준비가 부족할 때 현장에서 교육법의 효과적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Kim, B. H. & Kim, J. H., 2014). 이런 점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안내가 중요하며(Park, J. W., 2016), 무엇보다 수업 전 학습과 수업 중 활동 간에 교수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Bhang & Lee, 2014; Lee, Park, Kang, & Park, 2014).

이러한 변화요구는 민간뿐만 아니라 군 교육 기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은 다양한 전장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예측과 효과적인 대응,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측면에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도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학교 교육에 관한 한계를 인식하고,²⁾ 학습자 중심으로 군 교육훈련 방법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의 교육 패러다임은 ‘Teaching less, Learning more’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사 역할이 기존 지식 전달자의 교수자에서 ‘코치’로 전환이 필요하다.³⁾ 육군의 학교 교육 지시(2017)에 따르면, ‘학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학교 교육 방법으로 지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상황 위주 토의 및 토론식 교육, 상호동료교육, 숙달 체득식 교육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Lee, D. W., 2018). 예를 들어,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은 학습자에게 전투 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전장 상황을 문제 형태로 제공하고 토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교육방법이다(Park, J. W., 2016). 그래서 육군 학교교육은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혁신방향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런 교육 접근은 동료의 교수법 및 피드백 기반의 Learning &

1) 류성창, 조대연, 박세진, 안창희, 이운수(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핵심역량 조사 분석. 고려대학교 HRD 정책중점연구소.

2) 육군 교육사령부(2013). 학교 교육 혁신. 군 내부 교육자료.

3) 조대연(2022). 2022 미래교육 에센스.

Teaching 교육(Kang, H. T., 2014)을 적용하여 서로가 교수자로서 역할을 경험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한 상호동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군 교육사령부의 교수학습센터는 군내 교관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관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습자 중심의 여러 교수학습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여 코칭, 촉진, 조력, 튜터링 등의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주간 진행된 군사훈련('22년 7월~8월)에서 교육생인 생도들이 학습의 자기 주도성과 인지된 교수자의 코칭 행동 간의 관계를 측정하여 군 교육훈련 장면에서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교육생 학습의 자기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교수자의 코칭행동

코칭은 주로 일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인력의 업무 성과향상 차원(Woo & Lee, 2019)에서 문제해결, 역량개발, 업무능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Choi, S. Y., 2003). 그래서 코칭은 학습자의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학습자가 코치가 필요한 도움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Kim & Lee, 2018). 리더의 코칭행동은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Hong & Kim, 2020) 구성원이 지각하는 의미감, 유능감,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교수자의 코칭행동은 학습자가 지각하는 학습의 의미감이나 유능감, 학습 과정의 자기 결정력 등에서 학습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몰입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Kim, Kim, & Kim, 2021).

다만, 이런 코칭 과정은 구조화된 교수법보다 교수자가 갖는 학습자에 대한 믿음이 발현되는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장면에서 코칭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성과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Luecke, 2004)으로 문제해결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신뢰 속에서 학습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Peterson & Hicks, 199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칭행동은 리더 또는 관리자가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Lee & Cho, 2019)이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측정하기보다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코칭 관련 연구는 코칭 행동을 피관리자 혹은 학습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2.2 학습에의 자기주도성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은 전통적으로 구조화된 교육환경을 벗어나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평가하는 학습능력이며, 성장·발전과 관련된 학습이나 특정 능력 습득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Yu, S. Y., 2016). 그래서 군 교육훈련에서도 학습자인 생도들이 능동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학습에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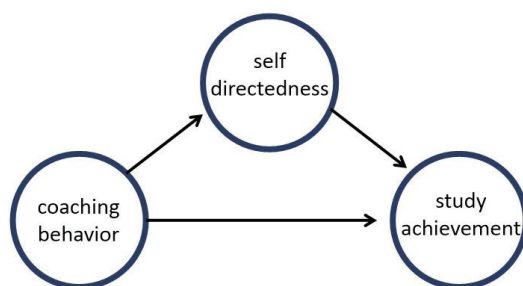
다만,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어느 수준으로 나타나는지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Park & Lee, 2015). 해당 능력에 관해 Guglielmino(1977)이 최초로 조작적 개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 SDLRS)를 제안하였다. 이 척도는 뛰어난 자기주도적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간에 구별할 수 있는 특정 행동과 성격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8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①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②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③ 학습에서 주도성과 독립성, ④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수용, ⑤ 학습에 대한 애정, ⑥ 창의성, ⑦ 미래 지향성, ⑧ 기본 학습과 문제해결력의 사용 능력이다. 이후 후속연구(Hyun, 1999; Hyun & Park, 1999; West & Bentley, 1990)는 척도 문항 수와 중복적 요소를 분석하여 ① 학습에 대한 애착, ② 학습에의 자기 확신, ③ 도전에 대한 개방성, ④ 학습에 대한 호기심, ⑤ 자기이해, ⑥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구성된 6개 요인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2.3 학습성과

교육 분야에서 학습성과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얻는 이점과 혜택(Boone, Safrit, & Jones, 2002)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지적, 기능적, 심리적 영역(Rhee & Choi, 2009)이나 학습자의 태도나 지식(Ku, Han, & Kang, 2015)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를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지적·정의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활동 간의 능동성,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수행, 수업 중 사고력 증진 활동, 타인에게 학습 내용 설명, 학습 스터디 활동을 제시하였다(Kim, M. M., 2001; Song, Y. M., 2016; Yu, Ko, & Lim, 2012). 즉, 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가 학습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인지적 기능(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고차원 사고력)의 향상(Astin, 1993; Choi & Shin, 2010), 학습성과(Kim, E. J., 2014; Lee & Lee, 2015), 의사소통능력(Yu, Ko, & Lim, 2011)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인 학습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의 안내자’로서 교수자의 코칭행동이라는 변인의 탐색을 통해 학습성과의 영향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관성을 확인하여 군 교육훈련 장면에서 교수자의 ‘코치’로서의 역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다음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한다(Figure 1).

연구가설 1 : 교수자의 코칭 행동은 생도의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가설 2 : 생도의 자기 주도성은 학습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가설 3 : 교수자의 코칭 행동은 학습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가설 4 : 생도의 자기주도성은 교수자의 코칭 행동과 학습성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군3사관학교 58기 411명의 생도 대상으로 군사 훈련 시기인 '22년 8월부터 1개월간 설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유효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총 409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409)

Sex \ Age	22	23	24	25	26	27	Total
Male	13	183	92	39	26	10	363
Female	1	10	17	9	6	3	46

3.2 측정도구

3.2.1 교수자⁵⁾의 코칭행동

교수자의 코칭 행동은 교관 및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동 전반으로 정의하고, Cho and Park(2011)의 척도를 차용하여 문제해결 지원과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역량 향상 지원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으로 코칭행동을 측정한다. 특히, 생도의 학습 환경에 맞게 관리자는 교수자로 업무는 학습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95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2.2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은 학습 목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의 의지 및 성향을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West and Bentley(1990)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한 Hyun, J. S.(1999) 연구의 척도를 활용한다. 학습 대상에 대한 의지와 학습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으로 구성된 총 32문항을 생도의 집단 생활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974이다.

3.2.3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학습으로 인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Kasworm(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Kwon, I. A.(2019)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한다. 학습성과 척도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이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965로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연구가설은 프로그래밍 언어 R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통계프로그램 jamovi 2.2.5를 활용하여 다음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의 구성 타당도(construct)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군 교육 훈련 교수자의 코칭행동이 자기주도성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sem)⁶⁾으로 분석하고,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관은 교관역량개발 교육을 수료하고(21. 5. 10~14) 생도 교육훈련에 참여하였다.

6)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가 설정한 여러 가지 잠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회귀분석과 요인분석이 결합되어 응용된 형태이다. 주로 측정 변수들 간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분석하므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라고도 한다(이진실, 2013; 홍세희, 2000).

IV. 결과

각 변수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의 요인부하량과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여 해당 측정모형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요인부하량은 연구에 따라 적합한 수치를 .40~.50으로 보고 있다(Costello & Osborne, 2005). 또한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확인하는데, CFI와 TLI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그 값이 클수록 적절하여 .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Brown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는 그 값이 작을수록 적절하며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08 이하 보통 적합도, .10 이상 나쁜 적합도로 판명한다(Hu & Bentler, 1999).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FI = .993, TLI = .990, RMSEA = .04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양호하였으며(.547~.724),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는 .50 이상일 때 보통, .70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판단하며(Fornell & Larcker, 1981), .748~.910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Latent Variable	Indicator	Factor loading	SE	AVE
Coaching behavior	Problem solving support	.706***	.028	.910
	Capacity building support	.639***	.026	
Self directedness	Willingness to the learner	.547***	.027	.748
	Positive self-awareness	.567***	.025	
Study achievement	Cognitive achievement	.724***	.028	.904
	Affective achievement	.705***	.027	

Note. All estimates were significant at $p < .001$ (***), CFI = .993, TLI = .990, RMSEA = .047.

각 변수 및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부록 1), 생도들이 지각한 훈련 교관의 코칭 행동은 평균 4점 이상으로 교관의 코칭 행동 빈도 및 질에 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의 척도와 왜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표본이 정규성 가정⁷⁾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Table 3)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코칭행동과 종속변수 학습성과,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주도성 간의 각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1$, .723~.805).

7) |왜도|≤2의 범위에 속하며 |첨도|≤4의 범위에 속하면 정상분포임을 가정함.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Variable	1	2
1. Coaching behavior	.723***	.805***
2. Self directedness		.790***

Note. *** indicates $p < .001$.

각 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4), 코칭 행동은 자기 주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며(연구가설 1 수렴), 코칭 행동이 학습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연구가설 2 수렴). 다음으로 자기 주도성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연구가설 3 수렴).

<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coefficients

Relationship	Estimate	SE	z
Coaching behavior → Self directedness	.777***	.040	16.83
Coaching behavior → Study achievement	.455***	.060	9.29
Self directedness → Study achievement	.504***	.050	9.69

Note. *** indicates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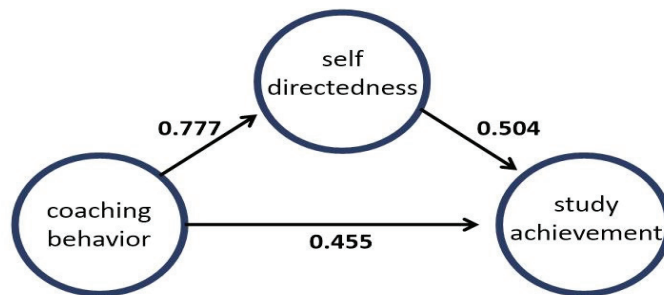
코칭 행동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정적 영향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Table 5),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코칭 행동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주도성이 매개하며(연구가설 4 수렴), 코칭 행동이 학습성과에 직접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self directedness

Effects	Estimate	SE	z
Indirect	.322***	.031	10.4
Direct	.502***	.037	13.4
Total	.824***	.030	27.5

Note. *** indicates $p < .001$.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Analytical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군 교육훈련 장면에서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생도들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군 장면에서 교수자의 코칭과 학습자의 학습성과 관계와 자기주도성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의 코칭행동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군 조직은 전체 구성원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로 군의 교육훈련을 시행할 때, 주로 교관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 및 시범이 이루어지고, 교관의 감독하에 교육생의 실습이 진행된다. 그동안 이런 방식의 교수자 중심 교육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코칭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코칭행동의 효과성을 실증방법을 토대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본 연구를 실시한 하계군사훈련 동안 생도의 교육훈련은 교관의 일방향 교육을 최대한 지양하고 과목별 특성에 따라 상호동료교수법(Peer teaching),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협동 학습 등으로 진행되었다. 생도들은 기본적으로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에 서로를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관이 생도에게 학습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생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관과 조교들은 생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질문을 제시할 시 도움을 주는 코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코칭 행동은 생도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교수자가 코칭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도의 자기주도성은 학습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군은 민간 사회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통일된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구성원이 각자의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하는 특성을 보이는 MZ세대가 사관학교와 군에 입대하면서(Choi, E. S., 2021) 그동안의 다소 획일적인 군의 문화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자기주도성과 학습성과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토대로 군 조직도 개개인이 자기주도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수자의 코칭 행동과 학습성과 간의 정적 영향관계를 보면, 학습자들이 지각한 교관의 코칭행동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관은 생도의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로 생도 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군의 교육기관 내 교관을 코칭 전문가 또는 전문 촉진자로 양성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교수자의 코칭 행동과 학습자의 학습성과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가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군을 대상으로 코칭행동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영향을 밝힌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코칭행동이 직접적으로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도가 주도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면서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습성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육군3사관학교는 생도교육에서 ‘자기주도성 배양’ 혹은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이라는 모토로 생도를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한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군 내 특정 집단만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후속연구는 군 내 여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사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훈련의 향상 요인을 식별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 주도성은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관찰측정과 변화 수준을 분석하는 종단연구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후속 연구자는 군 조직의 집합적 교육 특성을 반영하여 생도 개인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 외에 동료 생도의 지지(support) 역할이 집단교육(group learning)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e.g., Boateng, Attiogbe, & Kunbour, 2022)를 분석하여 군 교육훈련의 발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s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authorship, and/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H; Literature review: SH and KY; Resources and Data curation: SH and AD; Investigation and Methodology: AD; Writing (Original Draft): SH and KY; Writing (Review and Editing): AD; Project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SH, KY, and AD.

Reference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 Bhang, J. N. & Lee, J. H. (2014). Exploring Educational Significance of Flipped Classroom and Its Implications for Instructional Desig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4), 299-319. <https://doi.org/10.24211/tjkte.2014.31.4.299>
- Boateng, J. K., Attiogbe, E. J., & Kunbour, V. M. (2022). Influence of adult learners' self-direction on group learning. *Cogent Social Sciences*, 8(1), 2064592. <https://doi.org/10.1080/23311886.2022.2064592>
- Boone, E. J., Safrit, R. D., & Jones, J. (2002).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A conceptual programming model. Waveland Press.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wawQAAAAQBAJ&oi=fnd&pg=PR3&dq=Boone,+Safrit+%26+Jones,+2002&ots=I9L9Oy4FrY&sig=heL-bSciEQ1EUKmAoCqQeTIYK-E&redir_esc=y#v=onepage&q=Boone+%2C%20Safrit%20%26%20Jones%2C%202002&f=false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ho, D. Y., & Park, Y.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s coaching behaviors and the job performance of the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3(4), 89-109. <https://doi.org/10.18211/kjhrdq.2011.13.4.004>
- Choi, E. S. (2021).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dvanced Military Cultur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MZ Gen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33(1), 29-63. <https://doi.org/10.46561/KUA.2021.33.1.02>
- Choi, J. Y., & Shin, H. S. (2010). The nature and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effect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2), 131-154. <https://doi.org/10.22804/jke.2010.37.2.006>
- Choi, S. Y. (2003).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Leader's Coaching for the Employee and Customer Satisfac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of Hospital Nurses in Korea*. [Master's dissertation, Suwon University]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 research, and evaluation*, 10(1), 7. <https://doi.org/10.7275/jyj1-4868>
- Dillon, J. T. (1994). *Using discussion in classrooms*.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313>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iversity of Georgia.
- Hong, S. H., & Kim, M. S. (2020). The Effect of Supervisor's Coaching Behavior on the Member's Job Engagement through the LMX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 The Moderating Role of Problem-solving Oriented Coaching.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4), 621-647. <https://doi.org/10.18032/kaaba.2020.33.4.62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Hyun, J. S. (1999).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 for the Improv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Kang H. T. (2014). *Improvement of instructional design models and development of the design strategies based on reciprocal peer teaching and peer feedback in the context of army school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 Kasworm, C. (1995). *Outcome assessment of adult undergraduates*. in *American Association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Conference, Kansas City, MO*.
- Kim B. H., & Kim B. H. (2014). Korean language culture and discussion class: Role-exchange discussion class based on Flipped Learning. *Urimal*, 37, 141-166. <https://doi.org/10.18110/urimal.2014.37.141>
- Kim, E. B., Jeong, H. I., Kim, D. Y., Byun, K. Y., Lim, C. H., Choi, J. S., & Cho, D. Y. (2020). A Study on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Future Talent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6), 5-27. <https://doi.org/10.24159/joec.2020.26.6.5>
- Kim, E. J. (2014).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s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7), 209-231. UCI : G704-001586.2014.14.7.018
- Kim, M. J., Kim S. H., Kim, Y. I.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coaching leadership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Engagement.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12(3), 61-80. <https://doi.org/10.20434/KRICM.2021.08.12.3.61>

- Kim, M. M. (2001).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women-only colleges: Cultivating students' desire to influence social condition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2(3), 287-321. <https://doi.org/10.2307/2649333>
- Kim, S. H., & Lee, S. S. (2018).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Adult Learning Theory in the Coaching.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 2(2), 61-75. <https://doi.org/10.31137/ECC.2018.2.2.61>
- Ku, J. H., Han, S. H., & Kang, H.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Adult Learners' Lifelong Education Consciousness,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utcom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537-4548.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537>
- Kwon, I. A.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 Self-efficiency,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for Learning of Corporate Education Instructor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Lee, D. W. (2018).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to Military School Education. *Journal of military studies*, 15, 87-116.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864065623519&SITE=CLICK>
- Lee, G. J., & Lee, J. M.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s' satisfaction with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1), 105-127. UCI : G704-000511.2015.33.1.005
- Lee, J. Y., Park, S. H., Kang, H. J., & Park, S. Y.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Environment of Flipped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9), 313-323. <https://doi.org/10.14400/JDC.2014.12.9.313>
- Lee, Y. S., & Cho, D. Y. (2019). A Re-examination of Supervisor's Coaching Behavior Measurement using Rasch Rating Scal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3), 1-23. <https://doi.org/10.18211/kjhrdq.2019.21.3.001>
- Lee, S. K. (2012). A change an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National Defense Educational Paradigm in a knowledge & information-oriented society.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68(1), 39-63. <https://doi.org/10.31066/kjmas.2012.68.1.002>
- Park, J. W. (2016). *Formative Research o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based on Flipped Learning: A case study of ROK Arm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W. S., & Lee, D. H. (2015). The Effects of Learning Organization Coaching Process on Job Performanc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2(4), 49-74. <https://doi.org/10.14396/jhrmr.2015.22.4.49>

- Peterson, D. B., & Hicks, M. D. (1997). *Leader as coach: Strategies for coaching and developing others*. Minneapolis, MN: Personnel Decisions International.
- Rhee, B. S., & Choi, J. Y. (2009). Exploring the Differential Impac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Recent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36(1), 191-215. <https://doi.org/10.22804/jke.2009.36.1.009>
- Song, Y. M. (2016). A Study on the Learning Process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Outcom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899-918. UCI : G704-001586.2016.16.8.001
- West, R. F., & Bentley, E. L. (1990).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and Higher Education.
- Woo, S. M., & Lee J. G. (2019). A Review of the Trends in Coaching Leadership Research: A Focus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rom 2009 to 2018. *Competency Development Learning Research*, 14(3), 243-273. <https://doi.org/10.21329/khrd.2019.14.3.243>
- Yu, H. S., Ko, J. W., & Lim, H. N. (2011). Examining learning experiences influencing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high-order thinking skil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319-337. UCI : G704-000511.2011.29.4.011
- Yu, S. Y. (2016). Eine Studie des kooperativen Lernens zur Forderung der Lernerautonomie.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orea*, 38, 143-165. UCI : G704-000756.2016..38.009

원 고 접 수 일 2023년 03월 31일

원 고 수 정 일 2023년 08월 12일

게 재 확 정 일 2023년 08월 18일

〈부록〉

〈부록 1〉 기술통계분석 결과 (N = 409)

변수(구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첨도	왜도
코칭 행동	문제 해결	4.04	0.75	1.00	5.00	0.63	-0.71
	역량 향상	4.12	0.72	1.25	5.00	0.33	-0.71
자기 주도성	학습 대상에 대한 의지	3.78	0.65	1.42	5.00	0.04	-0.22
	학습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자기인식	3.97	0.64	1.29	5.00	0.66	-0.55
학습 성과	인지적	3.94	0.74	1.00	5.00	0.58	-0.61
	정의적	3.93	0.76	1.21	5.00	0.14	-0.55

군 교육훈련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사관생도의 자기주도성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혜선* · 강용관** · 안동현***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군 교육훈련 장면에서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사관생도들의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과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6주간 실시되는 군사학 교육훈련에 있어서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총 409명의 생도를 대상으로 교수자의 코칭 행동 및 학습에의 자기 주도성과 학습성과를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칭 행동, 자기 주도성, 학습성과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구조모형(sem)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자의 코칭 행동은 사관생도들의 학습에 자기 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교수자의 코칭 행동은 사관생도들의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생도들의 학습에 자기 주도성은 교수자의 코칭 행동과 학습성과를 매개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교수자의 코칭 행동이 생도들의 학습에서 자기 주도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관생도, 교수자 코칭행동, 학습에의 자기주도성, 구조방정식

* (제1저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강사, greetu@hanmail.net, <https://orcid.org/0009-0004-3202-7854>.

** (공동저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13128kang@gmail.com, <https://orcid.org/0000-0003-0062-6145>.

*** (교신저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강사, don2376@naver.com, <https://orcid.org/0009-0002-8667-7487>.